



군산 나운2동, 저장강박 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나서

군산시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남귀우)는 17일 관내 저장강박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통장단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인 A씨(70대)는 집안에 방치된 쓰레기와 물건들로 인해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으며, 특히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외부 활동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번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에는 통장의 역할이 컸다. 통장은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던 중 대상 가구의 급격한 변화를 파악해 행정복지센터에 제보했으며, 이후 1년여 동안 지속적인 가정방문과 설득을 통해 이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날 나운2동 통장단과 자원봉사자 등 10여 명이 참여해 집안 내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고 찌든 때를 제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